

D+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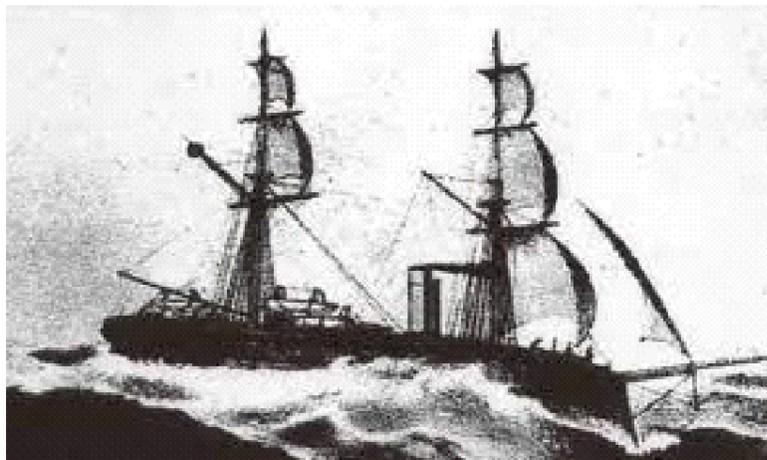
新 수능국어영역 선언문 I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배인호입니다.

6평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입니다.

외람된얘긴데,
국어 첫지문 보고 선생님께서 늘상 수업에서 강조하신 내용이 나와서 새삼 놀랐습니다.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런식으로 공부하라고 평가원이 가이드라인, 지침서를 말해 준것 같습니다.

새로운 수능 체제
1p
평가원의 선언문을 두 눈으로 보고도
수능 국어의 패러다임 변화를 깨닫지 못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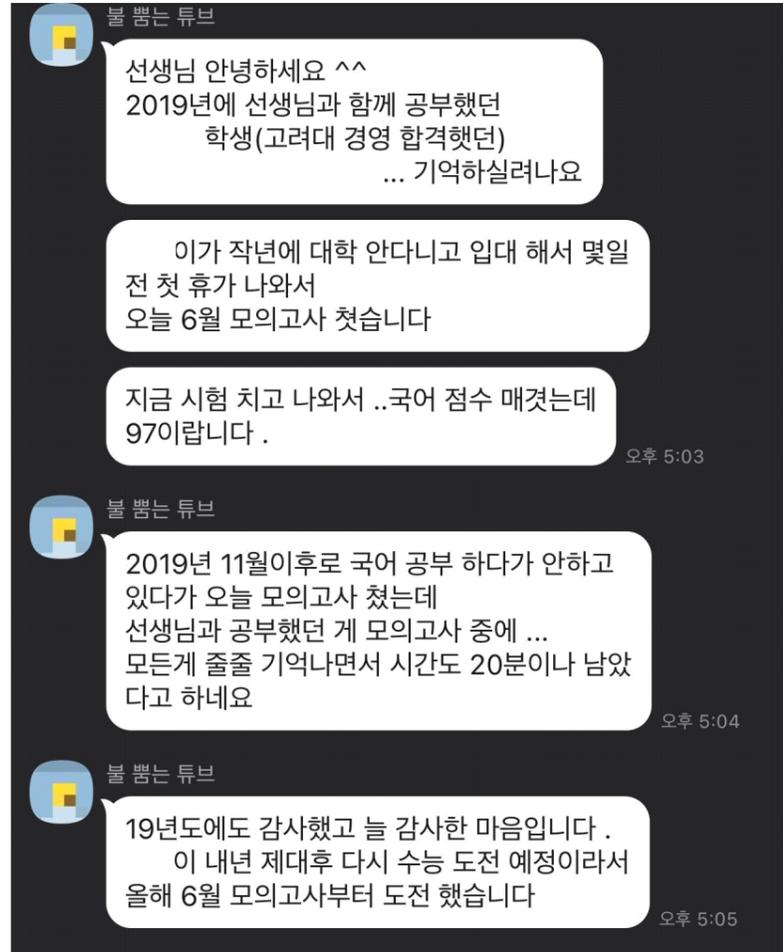


1875년 운요호 (불과 29년 뒤 대한제국은 일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조약을 통해 사실상 점령당한다)

그리고, 19년(20학년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한 학생의 어머님께서 오늘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학생은 고1 때 프로그래머를 준비하며 자퇴,
19년 3월에 공부시작, 수업 합류는 6월 평가원 후.
그리고 바로 그 해 수능 전과목 4개 틀리고

가군 고려대 경영 (합격/등록)
나군 서울대 다군 한의대 지원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2019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학생(고려대 경영 합격했던) ... 기억하실려나요

이가 작년에 대학 안다니고 입대 해서 몇일 전 첫 휴가 나와서
오늘 6월 모의고사 첫습니다

지금 시험 치고 나와서 ..국어 점수 매겼는데 97이랍니다 .

오후 5:03

2019년 11월이후로 국어 공부 하다가 안하고 있다가 오늘 모의고사 쳤는데 선생님과 공부했던 게 모의고사 중에 ... 모든게 줄줄 기억나면서 시간도 20분이나 남았다고 하네요

오후 5:04

19년도에도 감사했고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 이 내년 제대후 다시 수능 도전 예정이라서 올해 6월 모의고사부터 도전 했습니다

오후 5:05

저는 국어 과목을 잘 모르지만서도 수만회에서 선생님의 글을 처음 접한 2019년 5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나름 과거에 공부를 한 사람으로써 그때 머리를 한대 얻어 맞았거던요.

이가 19년도 수능을 치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배인호 선생님의 국어는 국어가 아니다 . 그냥 다른 과목이다"

선생님이 꼭 1타 강사가 되기를 바라는 1인 입니다 .
내년에 이가 6월에 제대들 합니다 . 그때 선생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어머님도 의사시기 때문에, '나름 과거에 공부'를 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 컨텐츠를 판단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음에도,

교육 상품을 불안감에 구입하는 상품인 보험처럼 생각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남들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결과는 이미 수십 년, 수백만 명의 수험생들이 통계 데이터로 말해줍니다.

스스로 판단 능력 없이,

남에게 의존하여 판단하는 그 선택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낭중지추(囊中之錐)”

현 시점, 가장 진화된 수업,

현 시점, 가장 진화된 관리,

‘학’과 ‘습’

‘edu’ and ‘care’

가장 진화된 수업은 이제 4대 메이저 인강 사이트

중 한 곳의 인정을 받아



10월 런칭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교육시장을 개척할

가장 진화된 교육 모델 개발 RnD 센터 소장으로

합류합니다.

“고민은, 성적 향상의 기회만 늦출 뿐.”

1등 수업

1등 교재

1등 자료

1등급

으로 고객님의 믿음과 선택에 보답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역사 첫 선택형 수능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최초의 문이과 통합 대입

3rd impact의 시대

4th 산업혁명의 시대

어쩌면, 구한말보다,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격변과 위기의 시대,

다시금 계몽,

아니 그 이상의 초월적 내딛음이 필요한 그 시대에,

저는 거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객들께서는 제 어깨를 밟고 올라가 더 멀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6평 해설. 분석. 앞으로의 방향.

시작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꼼꼼하게 읽기
- ②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
- ③ 글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 ④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읽기
- ⑤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며 읽기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벗끼리 서로 돕는 것으로는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퇴계(退溪)는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만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 뜻이 참으로 옳다.

- 이익, 「서독승면론」 -

- ①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려는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 ② 학문 과정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 ③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독서의 의미 구성 과정에 포함되는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가리킨다.
- ④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강론’ 또는 ‘기록’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과정과 연결된다.
- ⑤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드러낸다.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 ①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모범적인 독서 태도를 발견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 ③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알게 된 내용과 관련지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⑤ 독서 경험에 비추어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①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 정의 주제**
- ① 구조처리
 - ② 가치판단
 - ③ 내용이해
- 평가원 관점 독서의 본질**
- ① 사실적
 - ② 추론적
 - ③ 비판적
 - ④ 직·창의 상호텍스트
- 평가원 관점 독서의 본질**
- ① 주관적의미
 - ② 객관적의미
 - ③ 사회적의미
 - ④ 통시적의미

뒷받침 근거2)

- 1) 신 수능, 선언적 지문으로서, 레퍼런스는
- ① 독서의 본질에 대한 정의
 - ②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 독서 모형
 - ③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력/사고력 및 적용 창의력
 - ④ 문학 뿐 아니라 독서지문에서의 상호텍스트성
 - ⑤ 행동주의-인지주의-구성주의-사회구성주의로 이어지는
 - I. 심리학
 - II. 교육학
 - III. 교육심리학
 - IV. 뇌과학
 - V. 언어학
 - VI. 정보처리 이론 - AI - CS(computer science) 학문 영역을 Back ground로 함.

무엇보다, 대통령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평가원장도 아닌 일개, 심지어, 학자도 아닌 나 같은 아무개의 주장에 학생들이 흔들려서는 안 됨. 철저하게 기준은 평가원.

2) 고전 읽기 강조로도 해석 될 수 있는 마지막 문장은, 사실은 구조 처리로 보면 근거에 불과합니다. 최근의 정보처리 이론인, ①구조 처리 기반, 해당 내용의 텍스트에서의 역할은, 단지, '주제/주장인 글 읽기 방식'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에 불과함.

출제 의도 : 독서 개념

실전 : 발췌독 가능함.

하지만 언제까지 자의적 접근?

시력문제? 왜? 고3한테? 이 지문 보고도?!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①의 방법이 아닌 것은?

①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꼼꼼하게 읽기

① 사실적 사고

②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

① 구조처리

② 글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③ 사실적 사고

④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읽기

② 가치판단

-----여기까지, 독서-정보처리

⑤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며 읽기

-----여기까지, 문학-정보처리. 정답

출제 의도 : 사실적 이해 + 추론적 이해

실전 : 발췌독 가능...? 그러다 오답률 top10? 45%?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벗끼리 서로 돕는 것으로는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퇴계(退溪)는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만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 뜻이 참으로 옳다.

- 이익, 「서독승면론」 -

①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려는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구조 봅시다. 마지막 단락의 역할

궁극적 목적... 이 아니지. 정답.

이유는?

- ① 주관적 의미 (개인 배경지식 + 새 정보=구성주의)
 - ② 객관적 의미 (화자->청자)
 - ③ 사회적 의미 (사회적 소통)
 - ④ 통시적 의미 (기록으로 남아 역사성을 갖고, 인류의 자산으로 축적)
- 궁극적 의미는 ①~④ 중에 뭘까요?

근거가? 지문에 없는데요?
 누가 그렇게 풀라고 하시던가요?
 평가원?
 아니면 저 같은 장사꾼-방구석 전문가?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히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
 고 종합하며 읽기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나. 사실적 사고

사실적 사고란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사실에 맞게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읽어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요약하며 글의 연결과 전개 방법 및 글의 종류와 특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글의 내용이나 구성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사항이 사실적 사고의 측정 요소가 된다. 다만, 수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적 이해 능력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언어 능력으로 간주하여 다른 능력, 예컨대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보다는 비중을 낮추어 측정한다.

사실적 사고의 구체적인 하위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72

봐도 모르면... 틀려야죠...

② 학문 과정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제 수업 들던 학생들은 아시죠?
역시. 주제. 옳은 선지 일 수 밖에 없고.

③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독서의 의미 구성 과정에 포함되는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가리킨다.

- ③ 사회적 의미와 관련, 마지막 단락 +2
- +2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
- ① 주관적 의미
- ② 객관적 의미
- ③ 사회적 의미
- ④ 통시적 의미

④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강론' 또는 '기록'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과정과 연결된다.

③ 사회적 의미 (사회적 소통)

⑤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드러낸다. 마지막 단락의 주제인, 기록의 의의.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의도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전공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마주하는 누구라도 해야한다.

경험 이야기 하면서 끝

①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천 아니라. 경험.

② 모범적인 독서 태도를 발견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반성 아니라. 경험 연결

③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경험 그리고...

학습 경험 : 독자의 배경지식 (상향식 독서 모형)
 독서활동의 의미 : 새로운 지식 (하향식 독서 모형)
 즉, 상호작용식 독서모형으로, 역시 정답 선지 3번

④ 알게 된 내용과 관련지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험. 계획 L L

⑤ 독서 경험에 비추어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경험-연결. 중요성 인식 L L

“첫 수능. 첫 지문. 평가원 수능 독서 선언문 출제 배경”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구한말,
전근대적인 삶과 가치관으로 존재하거나
근대적 삶과 가치관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선택은 본인 몫

머리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험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의 출제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학교 수업을 통해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할 것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의 출제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학교 수업을 통해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할** 것입니다.

01 국어 영역

가. 시험의 성격

국어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을 기초로 대학 수학(修學)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국어 영역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중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과목의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측정한다.

나. 평가 목표

1) 개관

-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기초로 설정하였다.
-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세부적인 평가 수준과 요소는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설정하였다.

수능 국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독서

독서 능력은 정보화 시대의 국어 생활 맥락과 문헌 해석 및 활용 능력이 증시되는 학문 활동 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독서 영역에서는 인문학·사회학·자연과학·기술공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글을 제재로 하여,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글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배경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비문학

1. 철저한 구조적 방법 중심 강의로, 배경지식 없이도 스스로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강차입니다.

배경지식 없이도 :

배경지식 없이도 :



배인호T 그러면 이런 글 쓰시지 말고, **뒤**에 집중해서 먼저 1타가 돼 주세요.

우선 제 입장으로 말해보자면, 이번 시험이 표점 150점짜리 시험이 된 건 평가원의 출제 방법과 학생들의 공부 방법의 괴리 탓인가요?
애초에 평가원이 시험을 왜 출제하는데요? 대학 진학에 있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함 아닌가요?
공부 하란 대로만 공부하면 모두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만점이 아니더라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평가원이 지향하는 바일까요?

자신이 믿던 거짓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운 수험생의 심정을 잘 압니다.
걱정 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미 평가원 연구 교수님들께서, 선현들께서 밝힌 빛을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II 영역별 시험의 성격, 평가 목표, 학습 방법, EBS 연계

3) 독서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글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아울러 이를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독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독서의 본질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독서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고 독서의 가치를 성찰하기
	독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독서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며 읽기
	시대적 맥락에 따라 글쓰기 관습과 독서 문화가 달라짐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재구성하며 읽기
	지역별 문화의 특성이 글의 내용과 형식에 반영됨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재구성하며 읽기

독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임을 이해하고

독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

Q1. 평가원이 측정하고자 하는 국어 능력이란?

수능 국어영역 체계 <내용영역>/<행동 영역>
이원분류표

행동 내용	개념/어휘	사실적이해	추론적이해	비판적이해	적용/창의
화법					
작문					
문법 (언어)					
매체					
문학					
독서					

1) 내용 영역

독서 독서 능력은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정보화 시대의 국어생활 맥락과 비판적·창의적인 문헌 해석 및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학문 활동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독서 영역에서는 인문학·사회학·자연과학·기술공학·예술·생활 분야의 다양한 글을 제재로 하여,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를 위해 설명문·논설문·

문학 문학 능력은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심미적·창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가지 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에 기초가 되는 상상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또한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화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고전시가·고전소설·고전산문·민속극·현대시·현대소설·현대극·시나리오 등 다양한 문학 갈래의 작품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작품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021학년도 수완 실전 3 197~198p

베버에게 의미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그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따라서 베버는 일차적으로 의미를 행위자가 의도한 주관적인 것으로 본다. 그런데 베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행위는 비록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수반되고, 그 의미가 그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에 의해서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버는 ‘주관적’ 의미를 ‘객관적’ 의미와 구분한다. 베버의 이론에서 객관적 의미는 행위 주체의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함으로써, 즉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 형성된다. 물론 이때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관찰한 행위를 객관적 해석 틀에 정리하듯이, 행위자도 관찰자와 공유하는 해석 틀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버는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의 구분을 통해 사회적인 의미의 생성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행위’ 개념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끌어 내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사회적 의미는 행위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이해된 것으로, 사회적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고전 읽기

1. 성격

‘고전 읽기’는 초·중·고 공통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고전을 읽으며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는 과목으로, 고전을 통해 수준 높은 교양을 갖추어 다양한 분야의 진로에 필요한 지혜와 소양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전은 인류가 유사 이래 성취한 정신적 걸작으로, 고전에는 인류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고 시대와 문화의 한계를 넘어 보편성을 획득한 사유와 정신이 담겨 있다. 또한 고전은 글마다 각기 다른 개성과 감동을 지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며 인류가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소중한 바탕이 된다.

‘고전 읽기’에서 학습자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문학 등 다양한 고전과의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교양을 형성하고, 학문 활동이나 직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 수 있다. 또한 여러 분야의 고전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읽기 능력을 기르고, 고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토론과 논술 등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준 높은 국어 능력을 갖추며, 국어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22수능의 특이점. <독서>

1. 첫 지문 - 보너스지문임과 동시에,
수능 국어 선언문임과 동시에,
이 시대가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정보처리 능력의
국가적 규정.

2. 상호텍스트형 지문의 확립

총 5개의 누적 표본

=> 유형 1. 고전읽기 소재 활용

=> 유형 2. 예술 지문 등 난이도 낮은 지문을 세트형
출제함, 정보량 상승에 따른 난이도 높이는 형태의
출제

3. 오답률 평균 1등 PCR

- 기출 연계
- ebs 연계
- 전형적인 17~22 지문의 특성 보유
- 1. 정보량 폭발
- 2. 시간 부족
- 3. 지문 완벽 처리 해도 정답 고를 수 없음 (정답률
1/5 확률. 풀어도 or 주사위 굴려도 20%)

4. 3단락. 정보량 낮춘 이유는? 대비는?

- 필요시 05~13, 14~16, 정보량 낮은 기출 연습?
- 아마도 난이도 높이기 전 사전 작업으로 보임
-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배려

22수능의 특이점. <문학>

전형적인 문학교육의 목표 = '감정' 정보처리

절대 이과 vs 문과 아님

아니, 인간은 누구나 이성적 사고와, 감정적 사고를 함
감정만, 이성만 있는 인간이 누가 있음?

단지, 방법을 모를 뿐.

논리에 좀 더 강한 이과와, 직관에 좀 더 강한 문과.

논리적 설명을 못했던 기존의 수업 = 이과 이해 안 됨
직관으로 처리해버리는 문과 = 상대적으로 문과 이득

제 수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으면 누구나 끄덕 끄덕.

매우 논리적.

무엇보다, 나는 이과 베이스.

고등 내내 이과 과목이 매우 잘 나옴.

(그래서 이과로 응시. 문과 교차지원 노렸음)

기타 선택과목 총평은 추후 진행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A]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PCR는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14.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 ②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 ③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 ④ 실시간 PCR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 ⑤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② ㉠은 ㉡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③ ㉡은 ㉠과 달리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④ ㉡은 ㉠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⑤ ㉠과 ㉡은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16.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를 이용하려고 한다. 밑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17. [A]를 바탕으로 <보기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1> —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를 실시한다.

— <보 기2> —

만약 ㉠이 ㉡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이 (㉠).

↓

실시간 PCR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이 (㉡).

↓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은 ㉠이 (㉢).

- | | | |
|-----------|---------|---------|
| ㉠ | ㉡ | ㉢ |
| ① ㉠보다 많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 ② ㉠보다 많겠군 | ㉠과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③ ㉠과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작겠군 |
| ④ ㉠과 같겠군 | ㉠과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⑤ ㉠과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일단 17번...

안 풀리쥬?

17번만 문제가 아니라 오답률 난리.

이유?

1페이지 보고도 모르실까...

1페이지 대로 읽으심?

아니면 그냥 평소대로, 내용 하나 하나 꼬박 꼬박 다
처리 했으나,

결국 지문에서...응? 뭘소리??

이러다 문제 풀 때 하나도 판단 안 되니까
왔다갔다 이차저차...

바뀔시다.

구한말. 전근대적. = 언어영역 30년 다 된 정보처리

vs 근대적 = 국어영역. 이 시대의 정보처리 능력

여기 여백에 나를 구조도 그려봅시다.

그리고 선생님 구조도와 비교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도입**

요소
분자->증폭

①주형DNA
표적DNA

②프라이머

③중합효소

④뉴클레오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키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과정

①주형DNA
열->분리
이중->단일

②프라이머
처음.끝.결합

③중합효소
뉴클레오-
복제 1사이클
--2배

④충분.종료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장/단점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장/단점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A)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독립
정보
군집
출제의도

PCR는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결론
의의

1 주제 구조 세팅. 요소.

주제 : PCR 구조 : 주제세팅. 요소

주제세팅 : 염기서열 아는 DNA한분자라도 -> 증폭

요소 : ①주형DNA, ②프라이머, ③중합효소, ④뉴클-

①주형DNA : 원본 - 복사 대상 : 표적DNA

②프라이머 : 복사 처음 끝

③중합효소 : 복사 ④뉴클- :

2 과정

주제 : PCR과정 구조 : 과정

①분리 : 이중 -> 열 -> 단일가닥DNA

②결합 : 프라이머 : 단일가닥DNA에 처음 끝 결합

③복제 : 중합효소 -> 2개 2중 가닥

-----1사이클 : 2배 증폭...충분 ④종료

전통적인 PCR 최종산물 결합 - 발색

3,4 실시간 PCR 원리 및 장단점 (LFIA참조)

실시간 PCR

공통점 : PCR 실시

차이점 : 최종산물 결합 - 발색 vs 누적-발색-실시간

①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3단계-새로 생성 이중가닥 DNA에 결합 발색

vs

②형광 표시 탐침

2단계 결합 3단계- 분리 발색

5 독립정보군집 별도 문항

6 결론. 의의

꼭 유튜브 해설 영상을 바탕으로 이 해설지 참조 바랍니다. (kortube.net)

111프로젝트

혹은

배인호 초격차 국어 정규 커리큘럼을 따라 온 학생들은 여기까지

- 1. 구조를 바탕으로
- 2. 정보가치 판단
- 3. 주제 중심의 내용 이해가 끝났습니다.

핵심 정보와 원리는

PCR은

DNA정보를 미리 아는 분자 하나라도 DNA가 있다면

- 1. 원본DNA에서 - 복제할 부분 : 표적DNA
- 2. 그 끝에 붙는 프라이머
- 3. 그걸 바탕으로 중합효소에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서 복제 - 2배씩 증가
- 4. 충분히 지나면 완료

--- 검출은?

일정 기준 이상 발색도 = 검출

이렇게 처리 되고나면,

1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바로 이상하죠? 정답확률 높으니. 주제구조 좁히고 발체독.

우선, 프라이머 - 복제할 대상의 처음 끝에 붙는데 원소리지? 돌아가보니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1단락 해당 부분 밑줄에 이미 나왔네. 바로 정답.

배운대로, 주제-구조 좁히고 발체독. 정답 특정.

나머지 선지는 해설하지 않으려 했으나 본 수업/적용 익숙치 않은 학생들을 위해 추가 해설 합니다.

- ②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네. 원리는? 1회 사이클 2배씩.

당연히 처음~2배 = 1사이클

4배~8배도 결국 4X2=8 = 1사이클

- ③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5단락 원리인데.

표준시료를 기준으로.

단, 과정 중에 알 수 있는 것은 실시간.

역시 주제 + 구조

전통 vs 실시간

- ④ 실시간 PCR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역시 주제 + 구조

실시간도 결국 PCR. 1단계는 가열...로 시작

- ⑤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역시 주제 + 구조

실시간도 결국 PCR. 1,2,3,4, 요소 필요

당연히 3~4단락 정보 군집.

물어볼 수 밖에 없는 주제 + 구조

주제에 집중하면...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3단계-새로 생성 이중가닥 DNA에 결합 발색

vs

㉡형광 표시 탐식

2단계 결합 3단계- 분리 발색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근데 프라이머는 PCR에서 처음 끝에 다 붙는 거 아닌가?
이합체? 이걸 나중에 발체독인데...
PCR거치는건 공통점 같은데? 차이점??

② ㉠은 ㉡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역시. 주제는 발색이니까.
ㄱ결합 발색. 맞는 것 같은데?
좁히고 발체독! 맞네!

③ ㉡은 ㉠과 달리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역시. 주제는 발색이니까.
ㄴ 분리 발색인데? 뭔가 이상하고...

④ ㉡은 ㉠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ㄴ은 2~3단계에서 일어났는데? 1단계 아니다?

⑤ ㉠과 ㉡은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ㄱ이 결합발색인데?

위와같이, 주제, 구조 좁히고 발체독. 2번 정답 특징.
이렇게 가야하는 이유는

모든 정보 다 동등하게 다 살려서 100개의 정보 -
선지 5개 정도 매칭 보다는,

구조, 정보가치 판단, 좁히고 주제 중심 이해
100개 정보를 20개로 좁히고 선지 정보 5개 매칭이
훨씬

쉽고, 빠르고, 실수 없습니다.

지문 원리 이해, 문제 적용

16.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를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딱 봐도 3번까지는 전통 vs 4번부터 실시간

-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감염여부에 초기 바이러스양, 감염초기, 이게 관련있었나?

주제 원리 아니었는데? 나중에 정답 없으면 발체독 해야지...로 접근

-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가격이야기... 있긴 했는데 핵심은 아니었으니
역시, 나중에 정답 없으면 발체독 해야지...로 접근

-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아니지... 실시간이 훨씬 빨리 아는 건데?
확실히 틀렸고

-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당연하지? 원래 뭔지 알아야 하니까.
표적 DNA... 1단락에 정의로 좁히고 발체독...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역시! 정답

-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실시간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니까 실시간이지!
틀렸어!

17. [A]를 바탕으로 <보기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1> —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를 실시한다.

— <보기2> —
 만약 ㉠이 ㉡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이 (㉠).
 ↓
 실시간 PCR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이 (㉠).
 ↓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은 ㉠이 (㉠).

- | | | |
|-----------|---------|---------|
| ㉠ | ㉡ | ㉢ |
| ① ㉡보다 많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 ② ㉡보다 많겠군 | ㉡와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③ ㉡와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작겠군 |
| ④ ㉡와 같겠군 | ㉡와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⑤ ㉡와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우선 이과 학생들(수학 편한)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핵심 정보 / 원리

- ① 발색도 =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양 비례
- ② 일정 수준 발색도 = 초기양X2X2... 사이클횟수
아마도, 초기 양이 많으면, 사이클이 덜 돌아도 되겠지?
- ③ 검출 판단 기준 발색도 도달 사이클 Ct
- ④ 표준 시료 기준 Ct 비교 미지 시료 Ct

— <보기2> —
 만약 ㉠이 ㉡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이 (㉠).
 ↓
 실시간 PCR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이 (㉠).
 ↓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은 ㉠이 (㉠).

만약 ㉠이 ㉡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a > b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이 (㉠).

㉠의 초기 농도 = a,

㉠의 n회 사이클 후 농도 = a²ⁿ

㉡의 초기 농도 = b

㉡의 n회 사이클 후 농도 = b²ⁿ

a²ⁿ > b²ⁿ

가. 당연히 ㉠이 ㉡보다 높다! ①/②번 정답!

실시간 PCR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이 (㉠).

당연히 a가 더 높은거 아니야?

그럼 1번 선지?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은 ㉠이 (㉠).

애도 당연히 a가 더 높은거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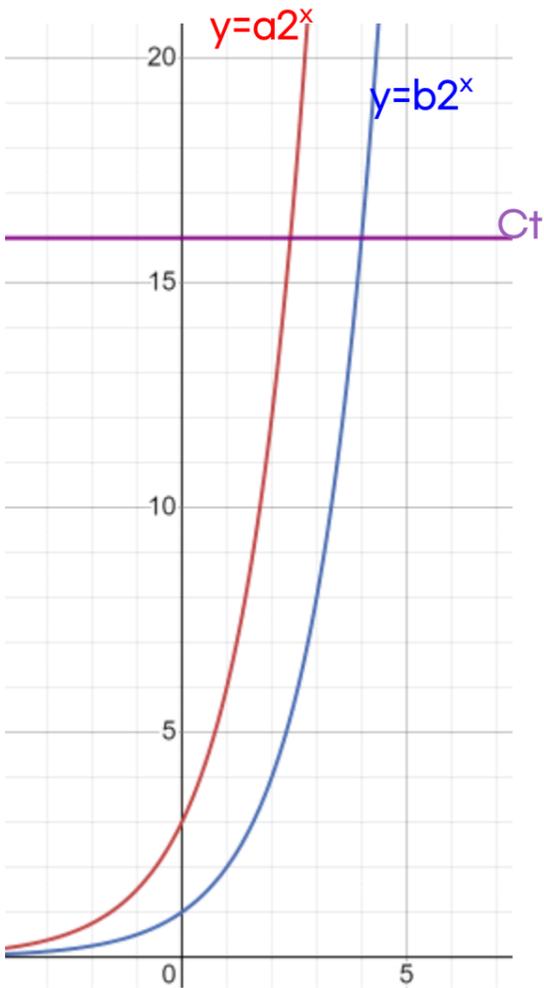
그럼 2번 선지?

잉? 정답이 없네???

이게 정답률 20%. 오답률 1등. 1/5. 주사위 굴려...

이과 학생들의 질문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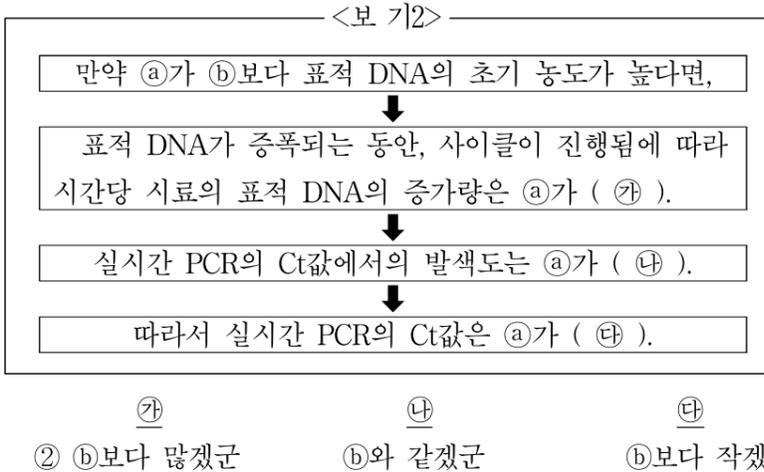
간단히 그래프 그림니다.



㉠의 초기 농도 = a,
 ㉠의 n회 사이클 후 농도 = $a2^n$
 $y=a2^x$

㉡의 초기 농도 = b
 ㉡의 n회 사이클 후 농도 = $b2^n$
 $y=b2^x$

㉢ 검출 판단 기준 발색도 도달 사이클 Ct



즉,

㉢ 검출 판단 기준 발색도 도달 사이클 Ct
 은 a든, b든 같고,
 그래서 나. 선지에는 같다! 정답 2번!

이번엔, 문과 학생들(언어적 설명이 편한)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당연히 초기 농도 a가 크니까,
 증가량도 ㉠이 더 크고
 ㉠이 ㉡보다 더 크다

사이클 횟수는 더 작아도,
 기준점에
 더 빨리 다다르겠지
 ㉠. 선지는 ㉠이 ㉡보다 더 작다!

그런데?

a든 b든 기준점은 검출 같잖아?
 사이클 횟수는 ㉠이와 ㉡이 동일!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평사의 나그네	有客清平寺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春山任意遊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花落小溪流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香菌過雨柔
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

(나)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다니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출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라 <제1곡>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시대 흘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라 <제8곡>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라 <제10곡>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최 행수 쪽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닭찜 계찜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욱, 「율리유곡(栗里遺曲)」 -

* 수출전원 :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다)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
 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짙

어졌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떼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짝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
 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딸려 들어간다.

‘옳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잡아당길 때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어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짝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 커녕
 [A] 어떤 때는 방계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B]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체
 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
 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4.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5.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육'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26.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나)의 '넓은 다리'는 '주가'와 '온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역시, 배운대로 고전 적용입니다.

수업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전은 그 시대의 가치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동시에 문학 - 감정 정보처리 - 공감 능력 측정

이과든 문과든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고,
그 공감 능력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필수적 능력

(가)

청평사의 나그네 인물	有客清平寺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긍정+	春山任意遊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긍정+	花落小溪流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긍정+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긍정+	香菌過雨柔
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긍정+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

제목. 제재 : 유객... 아마도 나그네?
역시, 나그네..
...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에 있으면서, 좋은 정서만...
주제는?
자연 친화 정도로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세속적 가치 X 자연에서 오는 가치 = 탈속적 가치

출제 될 수 있는 특이한 구조
촉발 부분 인물 세팅

(나) **인물**
도연명 (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다니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출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자연친화/안분지족 **동일시**

관직.권력.세속적가치 vs 자연.탈속 지향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 훌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재벌 안 부럽다 = 탈속적 가치 우선

아마도 관직...던지고, 자연으로?!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라** <제10곡>
매인 새 보다 훨씬 시원 = 자연친화.탈속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그럼 여긴 방향이 아닌, 자연 심취!

최 행수 쑥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닭찜 계찜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그렇게 자연 심취. 풍류. 편하게 살자!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 수출전원 :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검비한 세도가.

(다)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아마도 고사. 인물 세팅...
세속 vs 탈속 = 탈속 지향

“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 궁궐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생활 = 생계 = 어부 vs
취미 어부... 자연친화. 운치. 자유. 고고. 청고. 좋네유...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짙어엳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때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고기 잡으려 낚대 들이는 장면 묘사

㉡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짝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 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찌를 멀리 던지고 기다림...
그런데? 찌가 움직이네? 오! 고기인가? = 기대감!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간다.
 ‘웁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대어인가? 기대감!!!

잡아당길 때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어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커녕
 [A] 어떤 때는 방계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대어인가? 기대감!!!!... 방계네?! 개구리네?!!
하... 실망

[B]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송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취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생각해보니까 개뻥치네?

㉢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에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뻥침을 멀리 하기 위해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프로불편러가 되어서 급발진 할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렉카 유튜버들이며...
진다 속만 뒤집는 세상 소식들...
아오! 킹받네!!!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세상사 멀리하고 은거하는 예전 사람들 비판했는데 내 입장되고 보니까 이해는 되네...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상... 주제 중심 접근 하라 말씀 드렸습니다.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교훈? (가)와 (나)가?

그냥 자연친화 같은디... 일단 out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삶의 태도...자연친화... 맞네.

설의? 이걸 나중에 좁히고 발체독

#개념어 : 설의법 : 의문형으로 표현 = 어미 확인 = 문장 or 행의 끝 부분 확인.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심리변화가? (가)와 (나)가?

역시 out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내적갈등이요? (가)와 (나)가?

역시 out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것도 자연친화...맞는데?

계절.. 그러네! 봄산, 가을... 정답인데?!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주제. 정서 중심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지향... 그랬었고. 지명이 있었나?

기억 안 나면 나중에 좁히고 발체독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자연친화. 탈속. 맞췄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만족은 맞는데... 왜 자연을 연민해?

자연친화. 만족인데! 역시 정답!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자연친화. 정답!

24.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세속, 생계 낚시 vs 취미 낚시

② ㉡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낚시 몰입 장면 있는 것 같구요.

도구와 관계? 나중에 발체독

③ ㉢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찌 던지고, 기다리고, 찌 움직이고, 기대! 맞네!

④ ㉣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사람 나중에 개박쳤는디?

발체독... 이게 정답이네!

⑤ ㉤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췌. 옛 사람과 공감...

25.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특이한 전개방식

촉발부분 인물 세팅 = 비슷한 고사의 인물!

정답!

-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욕'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26.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장면... 기대했는데...방계...개구리... 소노! = 실망감

[B]장면... 생각해보니 개빱치네! 대노!!!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A]정서. 순서대로

경이감 - 무력감 - 실망감 - 상실감 - 혐오감

실망감. 정답 3번!

해설 강의 꼭 참조 바랍니다!

조어삼매 해설을 글로 보지 말고 수업으로 보세요.

유튜브에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아마 문학 작품을 수능에서 어떻게 읽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정적 도구가 보이실 거예요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신선 - 지향. 있고

근심? 아...이면 전제...

그러면 지향하는 곳을 대비적으로 더 효과적 표현

- ② (나)의 '넓은 다리'는 '주가'와 '온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아니 어디에 방향이 있냐구!

이 사람은 자연친화. 탈속 지향을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정답!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